

# 저소득 재가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문헌 분석\*

조 정 민\*\*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노인인구 비율은 2019년에는 14.4%로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8%로 초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Korean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8)되면서 노인의 건강 뿐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삶의 질이란 삶의 전반적인 상황이나 삶의 경험들을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삶의 만족으로서 인간의 생활에 주요한 개념이다. 삶의 질이란 개념이 갖는 추상성 때문에 만족감, 행복감, 안녕감 등이 관련된 유사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삶의 질은 여러 학문 분야에서 삶의 질과 관련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었고 학문 별로 특성이 반영된 다양한 관점이 강조되고 있어 다차원적 개념으로 이용되고 있다 (Yoon, & Cho, 2007).

노인은 노화와 더불어 건강문제들이 다양하게 증가하고 신체적 문제 뿐만 아니라 역할상실, 수입절감, 사회적, 심리적 고립과 소외 등으로 정서적 사회적 문제

가 발생한다(Yim, 2002). 특히 저소득층 노인은 다른 노인층보다 경제적 위기감이 더 크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크고 주거문제 등 자신을 돌봐줄 자원이 부족한 것으로 인한 고독감과 소외감 등을 더 많이 느끼고, 우울에 더 취약하며 주관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자신의 건강상태도 일반노인에 비해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Kim, Lee, & Park, 2010). 신체 건강에 있어서도 저소득층 노인은 상병률이 높고 질병이 만성적이며 합병증이 많고 이로 인한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이 노인의 경제적 상황을 악화시키므로 두 요인이 맞물려 반복적으로 건강과 경제상황 모두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Park, 2006). 이와 같은 신체활동의 어려움은 사회생활의 활동저하와 더불어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 고령화 시대에 증가되는 노인에게 단순한 수명연장 뿐 아니라 보다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고 특히, 일반 노인에 비해 건강 및 주위의 자원이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저소득층 노인의 삶의 질은 각자 노인 개인의 문제로 보기 보다는 사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과제이다.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여

\* 이 논문은 2011학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성신여자대학교 간호대학 교수(교신저자 E-mail: ccm9660@sungshin.ac.kr)

투고일: 2013년 7월 8일 심사완료일: 2013년 7월 9일 게재확정일: 2013년 8월 16일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Cho, Chung-Min

College of Nursing, Sung Shin Women's University  
76 street 55, Dobong-ro, gangbuk-gu, Seoul, 142-732, Korea  
Tel: 82-2-920-7726 Fax: 82-2-920-2091 E-mail: ccm9660@sungshin.ac.kr

러 연구에서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우선적인 요소를 신체적기능이라고 보고하고 있고(Lane, 1987; Ro, 1988) 신체적 기능 중에서도 근력, 유연성, 균형감을 주요한 요인으로 밝히고 있다. 또한, 신체적 기능과 더불어 외로움, 고독감, 우울과 같은 정서적 상황과 사회적 지지도 노인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hae & Oh, 1992; Yang, Kim, & Kim, 2001). 노인 중 저소득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연구한 관련연구들을 살펴보면 저소득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자아통제감, 정신건강, 연령이 저소득노인의 삶의 만족을 설명하는 주요한 변수인 것으로 확인되었고(Chung & Koo, 2011), Yim (2002)의 연구에서는 우울, IADL, 수면, 체력상태, ADL, 배우자 지지, 여가활동이 저소득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저소득노인의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우울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삶의 질은 전 세대에 걸쳐 중요한 개념이지만 특히 노인에 있어서는 신체, 정신, 사회적 변화로 인해 생활의 적응과 더불어 행복한 노년기를 보내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2012년 전 국민의 2.7%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인데 비해 65세 이상 노인의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6.3%로 생애주기 중 인구 수 대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저소득층 노인인구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3). 또한, 방문 건강관리 사업 등 지역사회 간호 영역의 많은 부분이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미시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일반 노인과 달리 환경이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는 저소득 재가 노인의 삶의 질은 개인의 의지로 결정되고 관리되는 부분이 극히 적기 때문에 국가와 정부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 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기존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삶의 질에 대한 연구들은 단편적으로 지역을 분리하거나 성별을 분리 하는 등의 동일 특성을 갖는 단일화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어서 이들 연구에서 각각 확인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한 연구는 소개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에서 수행된 저소득층 재가 환경의 노인을 대상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문헌들을 수집, 분석, 종합한 문헌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저소득층 노인의 보건·복지에 대한 정책결정과 실무 중재에 반영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저소득 재가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저소득 재가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재와 정책 개발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 재가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들의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저소득 재가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저소득층 재가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이전 연구들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문헌고찰 연구이다.

### 2. 자료의 선정, 검색 및 수집

#### 1) 자료 선정 및 검색

자료선정을 위한 대상 집단(population group)은 저소득 취약계층 65세 이상 지역사회 거주 노인으로서 시설보호를 받지 않고 일반가정에서 생활하는 절대적 기준 이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삶의 질에 관한 연구를 선정하였다. 연구유형(types of study)은 관찰연구 중 전향적 코호트 연구(prospective cohort study), 사례대조 연구(case control study), 단면적 연구(cross-sectional study)들을 선정하여 문헌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검색과 분석은 2012년 12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이루어졌다. 자료 수집은 1990년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문헌을 대상으로 하였고 검색에 활용된 데이터베이스는 PubMed, Embase, CINHALL, NDSL, RISS 이었다. 검색을 위해 NDSL, RISS에서 사용된 주요핵심어는 저소득,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 노인, 삶의 질이었고 PubMed, Embase, CINHALL에서 사용된 주요 핵심어는 low-income, poverty, elderly, elders, olders, community dwelling, quality of life이며 검색은 데이터베이스별로 주요 핵심어를 검색하고 이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언어는 영어와 한국어로 발표된 문헌으로 제한하였다.

### 2) 자료수집과 선별

자료수집과 선별은 2명의 연구자를 포함한 전문가가 제목과 초록을 독립적으로 검토하여 문헌을 선정하였다. 검토된 문헌의 선정이 차이가 나는 경우 다시 검토하여 의견의 일치를 볼 때까지 자료선정 기준에 따라 해당되는 문헌을 함께 검토하였다. 1차적인 자료검색을 통해 총 241편의 문헌이 검색되었다. 검색된 문헌 중 중복된 148편을 제외한 93편의 문헌을 대상으로 2명의 전문가가 연구제목과 초록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학술지와 학위논문이 중복된 연구, 재가노인이 아닌 시

설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삶의 질이 결과변수였지만 영향요인을 분석하지 않은 연구, 질적연구의 54편을 제외한 39편의 문헌을 선별하였다. 1차 선별된 39편의 문헌의 원문을 확보하여 동일한 기준에 따라 2명의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검토한 결과 30편 모두 본 연구의 대상 집단의 기준인 저소득층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9편이 문헌분석을 위한 문헌으로 선정되었다.

### 3) 자료의 질 평가

최종적으로 선정된 문헌의 질적 수준 평가는 Egger, Smith와 Altman (2001)이 제시한 평가틀을 기반으로 Park과 Bae (2011)가 고안한 질 평가도구로 질적 평가를 실시하였다(Table 1). 질 평가 항목은 대상자 선정 및 제외기준, 질환의 진단적 기준,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및 임상적 특성의 제시 여부, 연구추적기간, 삶의 질 측정도구의 신뢰도 또는 타당도, 측정변수에 따른 올바른 통계분석 및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을 보정한 통계치의 제시여부이다.

### 3. 자료 분석

문헌분석에 최종적으로 포함된 총 9편의 문헌의 특성을 분석한 후 코드화 하였고 문헌검토매트릭스의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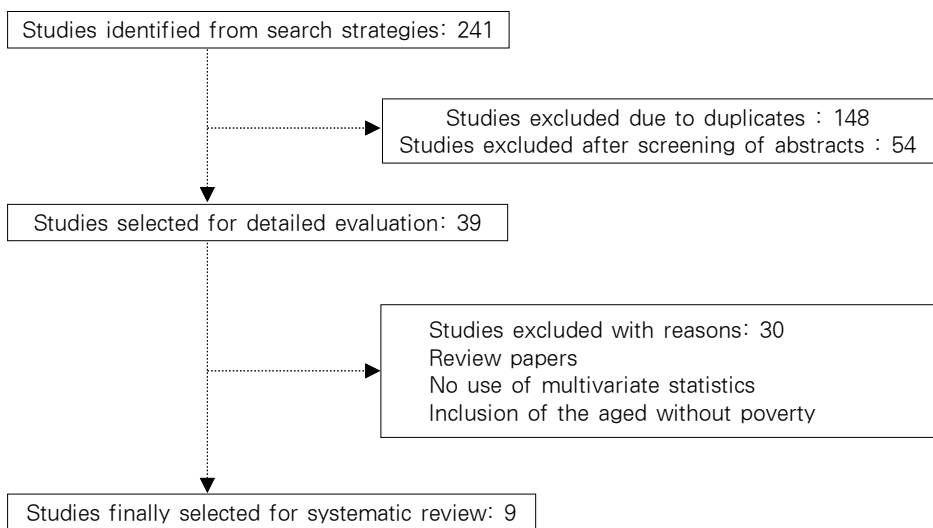


Figure 1. Study Selection Process for the Systematic Review

Table 1. Results of the Quality Assessment of Selected Studies

N=9

Studies	Sample of patients					Follow up				Measurement			Outcome		Analysis		Available use for effect size calculation (meta-analysis)
	Inclusion criteria	Exclusion criteria	Diagnostic criteria	Demographic characteristics	Clinical characteristics	Information participant versus non-participant	Period	Drop-out /loss ≥20%	Information completers versus loss to follow-up /drop-out	Reliability presented	Validity presented	Use of translated version	Fully defined	Transparent analysis techniques	Statistical adjustment	Score (Total Y)	
Lee et al. (2010)	Y	N	NR	Y	NR	N	N	N	N	Y	N	Y	Y	Y	N	6	N
Kim et al. (2010)	Y	N	NR	Y	NR	N	N	N	N	Y	N	Y	Y	Y	N	6	N
Kim et al. (2008)	Y	N	NR	Y	NR	N	N	N	N	Y	N	Y	Y	Y	N	6	N
Bak et al. (2010)	Y	N	NR	Y	NR	N	N	N	N	Y	N	Y	Y	Y	N	6	N
Im (2009)	Y	N	NR	Y	NR	N	N	N	N	Y	N	Y	Y	Y	N	5	N
Yim (2002)	Y	N	NR	Y	NR	N	N	N	N	Y	N	Y	Y	Y	N	6	N
Kwon et al. (2011)	Y	N	NR	Y	NR	N	N	N	N	Y	N	Y	Y	Y	Y	7	N
Yoon et al. (2007)	Y	N	NR	Y	NR	N	N	N	N	Y	N	N	Y	Y	N	5	Y
Kim et al. (2008)	Y	N	NR	Y	NR	N	N	N	N	Y	N	Y	Y	Y	Y	7	N

성은 일련번호와 발표연도, 연구수행국가, 표본 수, 자료 수집방법, 대상자의 성별, 측정도구, 자료분석방법으로 구성 하였다.

저소득 재가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종합 분석은 2명의 연구자를 포함한 전문가 합의가 될 때까지 6차에 걸친 토의를 거쳤으며 각 자료의 영향요인들을 공통적인 요소들끼리 모아 분류하고 범주화 하였다. 각 영향요인들이 연계성에 맞게 범주화되었는지에 대한 내용타당도는 관련 교수 1인에 의해 검증되었다.

### III. 연구 결과

#### 1. 문헌의 일반적 특성

문헌선정기준에 따라 문헌분석에 포함된 연구는 총 9편으로 자료선정과정은 Figure 1과 같다. 문헌의 발표연도는 2006년에서 2010년 발표된 문헌이 7편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연구가 이루어진 국가는 모두 대한민국이었다. 표본 수는 201-400명이 4편이었고 자료수집 방법은 9편 모두 단면적 연구 방법을 이용하였다. 표본의 성별은 9편 중 3편이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고 6편은 남성, 여성을 모두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로 남성노인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한 편도 없었다. 자료 분석방법은 로지스틱회귀분석 방법을 이용한 문헌이 1편이고 나머지 8편 모두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Table 2).

#### 2. 저소득 재가노인의 삶의 질의 영향 요인

문헌 분석을 통해 저소득 재가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들을 분류한 결과 인구학적요인, 건강관련 요인, 사회 환경요인의 3가지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인구학적 요인으로는 자녀의 수, 수입, 연령이었고 건강관련 요인으로는 관절운동 능력, 일상생활활동(ADL), 건강 지각, 수단적 일상생활활동(IADL), 건강증진행위, 우울 이었고 사회적 환경요인으로는 가족 지지, 재가복지 서비스 이용, 여가활동, 이웃의 수로 나타났다(Table3). 인구학적 요인 중 자녀 수는 자녀

Table 2. Characteristics of the Selected Studies N=9

Study characteristics	n
Year of publication	
2000-2005	1
2006-2010	7
>2010	1
Country of study conducted	
Korea	9
Not korea	-
Sample size per study	
- 200	3
201-400	4
401 -	2
Method of data collection	
Prospectively collected	9
Retrospectively collected	-
Study sample Gender	
Male	-
Female	3
both gender	6
Outcome measured	
The SF-12 Korean version by Yoo(2006)	1
WHOQOL-BREF, by Min(2000)	1
SWLS(Satisfacion with Life Scale)by Kim(2008)	1
by Ro(1988)	2
by Yoon(1982)	1
Korean Quality of Life Scale,KoQoLS, by Shim(1999)	1
by Oh(1992)	1
Others	1
Method of data analysis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8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1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
Others	-

의 수가 많은 대상자가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고 수입은 수입의 만족도와 주관적인 수입상태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건강관련요인 중 관절운동능력은 관절의 동통과 운동능력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쳤고 일상생활 활동 뿐 아니라 도구적 일상생활 활동도 모두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운동 및 영양실천 등의 건강증진행위와 지각된 건강상태가 높은 경우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우울은 9편의 문헌 중 6편에서 저소득층 재가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Table 3. Factors Influencing Quality of Life in Household Elderly in Poverty

Category	Factors	n(%)	Supporting references	Conclusions
Demographic factors	Number of children	1(11)	Kim et al. (2008)	One's quality of life was higher when had more children
	Income	2(22)	Bak et al. (2010)	Income satisfaction is needed in order to increase the quality of life
			Yoon et al. (2007)	Subjective income status was significant predictor of quality of life in elderly in poverty
	Age	1(11)	Kwon et al. (2011)	Factor influencing quality of life in elderly was age
	Health related factors	Joint exercise capacity	1(11)	Lee et al. (2010)
Kwon et al. (2011)				Factor influencing quality of life in elderly was joint exercise capacity
Activity of Daily Living(ADL)		4(44)	Im (2009) Yim (2002) Kwon et al. (2011)	The correlated factor of quality of life in elderly included ADL
Health perception		3(33)	Bak et al. (2010) Kim et al. (2008) Yim (2002)	One's quality of life was higher when had much better health perception of one's ownself
Socio environmental factors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IADL)	2(22)	Yim (2002) Kwon et al. (2011)	Variable significantly influencing quality of life was IADL
	Health promotion behavior	2(22)	Bak et al. (2010) Kim et al. (2008)	Health promotion behavior is needed in order to increase the quality of life
	Depression	6(66)	Kim et al. (2010)	The correlated factor of quality of life in elderly included depression
			Lee et al. (2010)	Depression was the most significant predictor of Quality of life
Socio environmental factors	Family support	2(22)	Yim (2002) Yoon et al. (2007)	Quality of life correlated positively with spouse support Family function was significant predictor of Quality of life
	Community-based service program	2(22)	Im (2009) Kwon et al. (2011)	Factors influencing quality of life was connection to community-based service program
	Leisure activity	2(22)	Yim (2002) Kim et al. (2008)	Quality of life correlated positively with leisure activity
	The number of neighborhood	1(11)	Kim et al. (2008)	One's quality of life was higher when having more than 3 neighbors

로 보고되었고 6편의 문헌 중 5편에서 영향요인들 중 가장 중요한 예측변수로 나타났다.

사회환경요인 중 가족지지는 배우자의 지지와 가족 기능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은 지역사회에서 경로당, 노인복지관, 가정봉사원 등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들이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도 삶의 질을 예측하는데 기여하였는데 가정 내 활동과 사회적 활동으로 분류하였을 때 사회적 활동을 하는 대상자에게서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웃의 수는 3명 이상일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IV. 논 의

점차적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우리나라 노인 자살사망률은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Jang, 2012)되고 있고 증가 폭이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정부차원의 제도 확립과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특히 물리적, 사회적 환경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시행되었으며 이를 위하여 문헌고찰을 시행하여 선정된 연구들의 일반적 특성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들을 확인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총 9편의 문헌 중 7편은 2006년에서 2010년에 수행된 연구로 자료 선정기준에 의하여 2000년부터 검색해볼 때 저소득층 재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 전반기에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는 않았고 2006년 이후에 대부분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는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 노인의 상대 빈곤율이 2002년 17.35%에서 2011년 48.3%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고 2011년 OECD 국가 평균 노인 상대 빈곤율인 13.5%와 비교해도 3배를 넘는 수치로 노인의 빈곤이 우리 사회의 점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된 것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어진다(Saesayon Media Center, 2013).

분석에 포함된 9편 논문의 연구방법을 살펴보면 무

작위 대조군을 이용한 실험연구와 전향적 연구는 없었고 단면적 비교연구가 대부분이었고 혼란변수의 통제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경우에도 인과관계에 대한 추론은 상대적으로 약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분석에 포함된 연구들에서 우울, 일상생활활동, 수단적 일상생활활동, 건강지각, 관절운동능력, 건강증진행위, 가족지지, 재가복지서비스이용, 여가활동은 여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에 포함된 논문의 성별을 비교하면 여성노인만을 대상으로 연구된 논문은 3편이었고 나머지 6편은 남성과 여성 모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한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중 2000년 후반부터 여성 독거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들이 증가하였지만 남성노인만을 대상으로 삶의 질에 대해 수행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사회의 노년기 자살 사망률 추이를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65세 이후 서서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남자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서서히 증가하다가 70세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Jang, 2012)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특히 저소득층 남성노인을 대상으로 한 삶의 질과 다양한 측면의 연구들이 활발하게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 저소득 재가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인구학적 요인으로는 자녀의 수, 수입, 연령이었다.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요인으로 연령, 교육정도, 경제상태, 자녀 동거상태가 보고되고 있어(Park, Kwon, Kim, Choi, & Han, 2005; Park et al., 1997) 본 문헌고찰 결과와 교육정도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것으로 보이지만 각 변수의 성격에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정도가 일반노인 대상에서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인구학적변수로 많은 연구에서 보고되었으나(Kwon & Cho, 2000; Min, 2006) 본 연구에서는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는 저소득층 노인이 일반노인과 달리 교육수준의 정도가 대부분 낮은 수준으로 정상분포를 보이기가 어려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인구학적 요인 중 수입은 일반 노인과 달리 대상이 저소득층 노인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수입정도에 따른 것이 아닌 본인이 지각하는 주관적 수입상태(Yoon, & Cho, 2007)와 소득의 만족도(Bak, Kim & Choi, 2010)로 주관적으로 인지한 경제상태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노인의 삶의 질 연구에서 자녀와 관련된 변수는 대부분 자녀와의 동거상태를 변수로 하고 많은 연구에서 자녀와의 동거상태가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보고되고 있다(Park, Kwon, Kim, Choi, & Han, 2005; Park et al., 1997). 노인의 삶의 질에 자녀의 수를 변수로 확인한 연구 중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Chae, & Oh, 1992)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Kim, Kang, & Kim, 2008)에서는 유의한 변수로 확인되어 저소득층 노인에게는 자녀와의 동거상태보다 자녀의 수가 유의미한 변수로 확인 되었다. 이는 경제적 상황의 어려움으로 인해 자녀와의 동거는 일반노인들 보다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수반될 것으로 보여 저소득 노인에게는 오히려 자녀의 수가 삶의 질을 예측하는 변수로 확인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저소득층 재가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 관련 요인으로 확인된 변수는 관절운동능력, 일상생활 활동, 수단적 일상생활활동, 지각된 건강상태, 건강증진행위, 우울로 확인되었다. 이중 우울은 9편의 논문 중 6편의 논문에서 저소득 재가노인의 삶의 질을 예측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이는 Choi (1997)가 일반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관련 요인으로 일상생활활동, 수단적 일상생활활동, 지각된 건강상태, 건강증진행위, 우울을 보고한 연구와 대부분 일치하여 건강관련요인 변수들은 일반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관절 통증으로 인해 관절운동능력의 제한이 있는 경우 만성통증은 노인에게 우울을 야기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되고 일상생활 장애와 활동장애는 물론 정신적인 문제까지 유발 할 수 있어 복합적인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Lee & Yang, 2010). Lee와 Yang (2010)의 연구에서 저소득층 재가노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남성은 우울, 근골격계 만성통증의 순으로 여성은 근골격계 만성통증,

우울의 순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순위의 차이는 있지만 두 변수 모두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들로 보고하고 있다. 저소득 재가노인은 일반노인보다 하지 근 지구력, 균형감 등의 신체적 기능상태가 저하되어 있고(Yim, 2002) 거동을 도와줄 가족이나 지지 집단이 취약하고 거주환경도 외부와 접촉하기에 용이하지 않은 경우들이 일반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고려해볼 때 보다 일반 노인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중재로 관절운동능력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저소득층 재가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환경 요인을 확인한 결과 가족지지, 재가복지서비스 이용, 여가활동과 이웃의 수가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일반노인인 경우 가족, 친척, 친구, 이웃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긍정적 자원인 사회적지지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보고되고 있다(Park, 2004). 그러나 저소득 재가노인은 가족 다음으로 친척보다 비혈연관계인 친구, 이웃으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제공받고 있고 시설노인과 비교해볼 때 시설노인보다 낮은 수준의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Peters, 1986; Yim, 2002). 특히 저소득 노인들은 일반노인에 비해 배우자가 없거나 독거노인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아 어떠한 지지나 원조를 제공받기 취약한 층으로(Sung, Lim, & Joo, 2011; Wenger, 1994) 이들의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지지 제공자원 중 하부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아닌 가족과 이웃이 의미 있는 지지 제공의 자원이었고 시설노인보다 사회적 지지정도가 낮은 취약한 집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저소득 재가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의 자원이 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저소득 재가노인에서 재가복지 서비스 이용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환경 요인으로 확인되어 일반노인과 차이점을 보였다. 재가복지 서비스는 시설복지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각자의 집에 거주하면서 지역사회에서 가정봉사원이 파견되거나 대상자가 기관에 통원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의미한다(Im, 2009). 본 연구결과 저소득층 재가 노인이 이용



하는 재가복지서비스는 경로당, 노인복지관, 가정봉사원 이용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가복지서비스 기관도 저소득 재가노인에게는 이들에게 취약한 사회적 지지의 기능을 하는 자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재가복지 서비스의 전달체계가 형평성의 원칙에 맞게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회적지지 자원이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확인된 저소득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울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이 정부차원의 제도로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살예방센터나 정신보건센터에서 지역사회 대상자들에게 우울에 대한 관리를 제공하고 있지만 여러 정신 질환 중 하나의 질환으로 다루어지고 있어 연령의 특성에 따른 대상자 중심의 프로그램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특히 저소득층 노인에게 우울은 본 연구에 사용된 문헌 9편중 6편의 연구에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고 이 중 5편에서 연구변수들 중 통계적으로 가장 유의한 예측변수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한 우울 예방 및 관리프로그램이 지자체의 자살예방센터나 정신보건센터 등에서 대상자의 특성에 맞추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대상자인 저소득 재가 노인은 일반노인과는 달리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 보다는 관절운동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삶의 질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중요한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관절운동능력에 제한이 있을 경우 이웃의 접촉과 복지관 이용과 같은 활동에 장애가 발생하고 그 결과 우울이 초래될 수 있어 다시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따라서 저소득 재가노인의 관절운동능력을 유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은 이들의 삶의 질을 유지 및 증진 시키는데 있어 효율적인 중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대상자들은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이 일반노인들과 달리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공 되어지는 재가복지서비스는 양과 질적 측면에서 볼 때 수요층을 만족시킬 만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재가 복지서비스가 개발되고 서비스 제공기관도 수요자에게 골고루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 저소득 재가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사회 우울 예방 및 중재 프로그램 및 관절운동 능력 강화 프로그램의 중재프로그램들이 심도있게 개발되고 제공되어야 하며 정책적으로는 저소득 노인을 위한 다양한 내용의 재가복지 서비스가 개발되고 제공을 충분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저소득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체계적으로 고찰하여 우리나라 저소득층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과 실무에 반영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그 결과 저소득 재가노인의 삶의 질 영향요인으로 자녀의 수, 수입, 연령의 인구학적요인과 관절운동능력, 일상생활활동, 도구적 일상생활활동, 건강증진행위, 지각된 건강상태, 우울의 건강관련요인, 가족지지, 재가복지서비스이용, 여가활동, 이웃의 수의 사회환경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요인 중 우울은 일반노인과 저소득 재가노인 모두에게 가장 유의하게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관절운동능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재가 노인들에게서 다른 신체 프로그램보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효율적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은 시설노인보다 낮은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는 저소득재가노인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환경요인 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저소득 재가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및 정책 개발이 필요하며, 현대사회의 변화하는 가족구조에 따른 저소득층 노인의 지지체계 개발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 Bak, S. S., Kim K. S., & Choi, J. H. (2010). Quality of life older women living alone.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12(3), 248-255.
- Chae, S. W., & Oh, K. O. (1992). A study on social support and the quality of life in the

- elderly.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22(4), 552-568.
- Choi, H.(1997). *Health status and the quality of life of the rural elderl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Chung, S. D., & Koo, M. J. (2011). Factors Influencing Depression: A Comparison among Babyboomers, the Pre-elderly, and the Elderly. *Journal of Korean Welfare of the aged*, 52, 305-324.
- Egger, M., Smith G .D., & Altman, D. G. (2001). *Systematic reviews of observational studies in systematic reviews in health care: Meta-analysis in context (2nd ed.)* London: BMJ Books.
- Im, S. Y. (2009). A study on quality of life of single household elderly in urban poverty. *The Journal of Living Culture Research*, 24(1), 31-52.
- Jang, Y. S. (2012). Suicide status and policy task of Korea. *health ·welfare Issue & Focus* 165, 1-8.
- Kim, H. K., Lee, H. J., & Park, S. M. (2010). Factors influencing quality of life in elderly women living alone.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30(2), 279-292.
- Kim, H. R., Oh, K. S., Oh, K. O., Lee, S. O., Lee, S. J., Kim, J. A., Jun, H. Y., & Kang, J. H. (2008). Quality of life in Low Income Korean Aged. *Journal of Korean Academic Nursing*, 38(5), 694-703.
- Kim, S. H., Kang, H. J., & Kim, Y. J. (2008). The effects of a social network for female elders living alone in Rural and Fishing Villages on their quality of life.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3(3), 51-71.
- Korean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8). *Population movement estimation*, retrieved November, 20, 2008,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
- Kwon, J. D. & Cho, J.Y. (2000). A study of factors influencing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aged.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0(3), 61-76.
- Kwon, Y. H., Kim, C. N.,& Kwak, O. G. (2011). Factors influencing depression and quality of life in elderly customized home visiting health service. *Journal of Korean Academic Community Health Nursing*, 22(3), 262-271.
- Lane, D. A. (1987). Utility, decision, and quality of life. *Journal of Chronic Disease*, 40(6), 585-591.
- Lee, S. H., & Yang, S. O. (2010). The effects of chronic musculoskeletal pain and depression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by gender in community-dwelling older adul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Nursing*, 21(1), 21-30.
- Min, K. J. (2006).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daily activities on the quality of life for the aged*.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nsung University, Seoul.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3). *Present condition with recipient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guarantees(No 58)*. Seoul: Author.
- Park, E. S., Kim, S. J., Kim, S. I., Jeon, Y. J., Lee, P .S., & Han, K. S. (1998). A study of relationship between health promoting behavior and quality of life in the elderl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Nursing*, 6(2), 238-251.
- Park, K. N. (2004). A study on quality of life on the aged along gender and area characteristics. *Women*, 21(2), 5-35.
- Park, S. J. (2006). *Exploratory study on the*

- component of successful aging for the low-income elderly*.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 Park, Y. R., Kwon, H. J., Kim, K. H., Choi, M. H., & Han, S. E. (2005). A study on relations between self-esteem, self efficacy and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29*, 237-258.
- Park, J. H., & Bae, S. H. (2011). A systematic review of psychological distress as a risk factors for recurrent cardiac events in patients with coronary artery disease.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41*(5), 704-714.
- Peters, G. R. (1986). Primary-group support system of the aged. *Research on Aging, 9*(3), 392-416.
- Ro, Y. J. (1988). *An analytical study of the quality of life of the middle-aged in seou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Saeyon Media Center, Seoul. (2013, July). *Aging poverty rate of Korea 48.3%*. Retrieved July 26, 2013, from <http://sisun.tistory.com/1274>
- Sung, M. H., Lim, Y. M., & Joo, K. S.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loneliness in elderly women living alone.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5*(1), 95-106.
- Yang, S. H., Kim, S. M., & Kim, S. Y. (2001). A study of home health care need of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1*(1), 31-46.
- Yim, E. S. (2002). *Effect of physical ability, depression and social support on quality of life in low income elders living at home*.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Yoon, M. S., & Cho, H. J. (2007). A study quality of life and drinking problem with rural and urban elderly. *Korean Association Social Welfare conference sourcebook, 4*, 515-523.
- Wenger, E. M. (1994). *Understanding support network and community care: Network assessment for elderly people*(3rd ed.). England: Averbury.

ABSTRACT

## Factors Influencing the Quality of Life in Low- Income Elders Living at Home: A Literature Review\*

Cho, Chung-Min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ungshin Women's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e and trends of factors influencing the quality of life in low- income elders living at home. **Methods:** To carry out this study we established the patient, intervention, comparison, outcomes (PICO) strategy, reviewed 241 published documents from both national and international electronic databases, and finally selected 9 references based on inclusion and exclusion criteria alone. The quality of selected references was assessed using 15 questions. Two reviewers independently examined titles and abstracts and assessed whether each met the predefined inclusion and exclusion criteria. **Results:** The following factors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quality of life in low- income elders: (1) demographic factors such as number of children, income, and age; (2) health - related factors such as joint exercise capacity, activities of daily living/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health perception, health promotion behavior, and depression; and (3) socio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family support, community-based service program, leisure activity, and the number of neighborhoods involved. **Conclusion:** The results of our study provide a definite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a policy strategy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in elders with low income and we hence strongly recommend that any strategy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in low-income elders be based on the results of our study.

**Key words :** Poverty, Aged, Quality of life

\* This study was supported through research funds at College of Nursing Science, Sungshin Women's University